

순천만국가정원, AI·아날로그 감성 더하다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매주 주말 대규모 음향, 무대, 출연진을 없앤 자유로운 형태의 문화 행사를 기획해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 13일 첫 선을 보인 플루티스트의 1인 공연 모습. <순천시 제공>

‘정원문화 그린루트’ 주제…연말까지 주말 문화행사 선봬 캐릭터 카퍼레이드 등 음향·무대·출연진 없앤 3無전략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원 문화(감성) 그린루트’를 주제로 AI와 아날로그 감성을 입혀 12월까지 매주 주말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원문화(감성) 그린루트’는 AI와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우주인도 놀러오는 정원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개장한 국가정원에 아날로그 감성의 빛을 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국가정원만의 차별화된 수준 높

은 문화행사를 위해 ▲콘텐츠 강화 ▲콘텐츠 개선 ▲콘텐츠 창출 등 크게 3개 전략을 수립해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스페이스 허브에서 정원 감성을 살린 수준 높은 기획 브랜드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13일 첫 번째로 시작한 플루티스트와 남성 6인조 관악이 밴드가 잔디와 호수를 배경으로 퍼포먼스를 실시해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

었다. 오는 5월부터는 콘텐츠 개선을 통한 자체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순천의 스토리를 담은 캐릭터 카퍼레이드를 매주 토요일에 실시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또한 정원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해 지역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 등도 다채롭게 편성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자원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문화 행사에 주목할만한 점은 정원과 조화로운 공연을 위해 대규모 음향과 무대, 그리고 대규모 출연진을 없애는 3無전략이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반짝 진행되는 행사보다는 꿈과 감성을 섬세하게 자극

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정원 문화 3無 전략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시장은 “국가정원이라는 순천만의 특별한 지역자원을 정원 문화 전달 플랫폼으로 조성해 문화 자원 가치의 극대화를 꾀하겠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정원문화(감성) 그린루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정원운영과에서는 국가정원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시민이 일상에서도 정원문화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 행사 사진과 공연 영상을 국가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순천=정기기자

광양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추진

내달 17일까지 시민의견 수렴…내년 시행 목표

광양시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체계인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오는 5월17일까지 광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광양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광양의 미래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생 본인이 관내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거나 주민등록 합산 기간이 7년 이상이면 본인 부담금의 100%, 초·중을 졸업했거나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본인 부담금의 70%, 고등학교만 졸업했거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양시에서는 2025년 이후 사업을 시행해 1차년도에 4학년, 2차년도에 3·4학년, 3차년도에 2·4학년, 4차년도에 1·4학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신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

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 최대 8학기까지 지원 받는다. 이 사업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5월17일까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시민참여·신규정책 사전공개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인화 시장은 “이 사업은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교육 정책이자 출산율 제고 등의 인구 정책”이라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여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출범

2050 탄소중립 실현·녹색성장 추진

여수시는 “최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출범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여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전남대학교(여수)로 지정됐으며, 2026년까지 여수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이다. 센터는 ▲탄소중립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정기명 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이정식 전남대학교 부

총장, 도내 탄소중립 지원센터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현판식 후 센터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김정인 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이 ‘탄소중립 도시 조성’과 COP유치를 위한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여수시 제공>

담양군, 道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

담양군은 “최근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천5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전남도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6천만 원을 더해 총 1억2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앞서 군은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전남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5천270만원, 3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의 만족감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보성차(茶) 3종, 싱가포르 수출길

4만달러 상당…그린·블랙·허브티 3종 고주현(GJH) 수출

보성군이 싱가포르에 보성차(茶) 3종을 수출하면서 글로벌 차(茶) 시장에서 한국차의 우수성을 알린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융치면 강산농원 영농조합법인인 생산한 보성차 블렌딩티 3종(그린티, 블랙티, 허브티)을 싱가포르 고주현(Goh Joo Hin Pte Ltd)사에 수출했다. 수출 상차식에는 김규용 부군수를 비롯한 선지영 보성농협 지부장, 최정차산산업연구소 소장, 권운상 판지데이 지주 대표, 김영민 강산농원 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첫 납품

물량은 약 4만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보성군과 싱가포르 고주현, 판지데이지주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정 특산물에서 자란 보성차(녹차, 홍차)와 허브차를 배

이므로 블렌딩해 개발한 제품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내 백화점·마트에서 유통된다. 보성군은 금전 3종 차 수출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고주현과 함께 보성의 우수 농특산물 수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주현사의 ‘뉴문(New Moon) 브랜드 6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계획 중이다. /보성=임병진 기자



보성차 3종 수출 기념식 모습. <보성군 제공>



화순군이 오는 28일까지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에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고인돌 탐방버스를 운행한다. <화순군 제공>

‘화순 고인돌 유적지’ 탐방버스 운행

28일까지 주중 운영·내달부터 정기 운영 계획

화순군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에서 고인돌 탐방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운행한 고인돌 탐방버스는 도곡 고인돌유적종합안내소와 춘양 감태바위 구간을 왕복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2대(2인승·18인승)의 차량 중 18인승 1대에는 교통약자의 관람 편의를 위해 승·하차 리프트

시설이 설치됐다. 매표 장소는 도곡과 춘양고인돌유적 종합안내소 2개소이며, 요금은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또한 도로 유적지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인돌 탐방버스 운영이 시작되는 19일부터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화순군 고인돌사업소 관계자는 “고

인돌 탐방버스로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를 관람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써 화순 고인돌 유적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화순으로 봄소풍 가자!’라는 주제로 19~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고인돌 탐방버스는 관람객 안전을 위해 월·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운행할 예정이다. 고인돌 탐방버스는 축제가 끝난 5월부터 정기 운행할 계획으로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당일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가정의 달, 황룡강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장성군, 2만8천주 해바라기 식재…내달 중순 만개 예상

장성군은 “최근 황룡강 힐링허브정원-장안고 일원에서 해바라기 식재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촌지도자장성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장성군연합회, 장성군4·H연합회 회원 등 150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해바라기 꽃밭 조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참여자들은 2만8천여주의 해바라기를 심으며, 오는 5월24~26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준비의 시

작을 알렸다. 해바라기 꽃밭의 개화 시기는 5월 중



장성군에서 열린 해바라기 식재 행사 모습. <장성군 제공>

구례군 ‘교육발전특구’ 공모 본격 준비

구례교육지원청 TF팀 구성·사전 업무협의회 개최

구례군이 지역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준비에 본격 나섰다. 22일 구례군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회가 열렸다. 사전 업무협의회는 교육발전특구 사

정주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에는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의회 의장, 구례군 관내 교육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회가 열렸다. 사전 업무협의회는 교육발전특구 사

업 목적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 용역 발주 추진 상황 보고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구례군은 연구 용역을 통해 구례 교육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구례군 최적의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 모델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구례교육지원청과 TF팀을 구성해 연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갖췄다. /구례=임종길 기자